



고양시 은행나무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



은행나무는 가뭄, 해충, 공해 등 식재 환경에 내성이 높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대기 및 토양의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정화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나 조경수로 매우 적합한 수종이다. 가을이 되면 노란 단풍이 들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미관에 심취해 있다가 은행나무 열매의 독특한 냄새가 풍겨 올 때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에 고양시는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 악취 방지에 나섰다.

글. 사진. 박창훈(고양시 소설기자)



은행수거 그물망으로 수거되는 열매들



열매 악취로 천덕꾸러기가 된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는 여름엔 푸르게, 가을이면 노란 낙엽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의 어느 도시든 가로수로서의 은행나무는 깊어가는 가을의 천덕꾸러기 입상이 되곤 한다.

길바닥에 툭툭 떨어진 은행열매가 사람 발에 밟히고, 차바퀴에 깔려 으깨어지면서 구린내 같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이 냄새는 은행알을 둘러싼 외피 과육의 물질인데, 은행이 해충이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라고 한다.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

고양시는 매년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로 발생하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했다.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가장 처음 설치된 은행수거 장치의 아이디어는 뛰어났지만, 조금의 불편이 있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없이 제작되어, 간혹 너무 크거나 특이한 모양으로 자라난 은행나무에는 대응이 어려운 점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한층 발전된 은행수거 장치를 제작했다. 새롭게 태어난 은행수거 장치는 설치 각도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길이는 최대 4m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고양시는 도심지 내 주요 도로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위치한 은행나무에 우선적으로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은행 열매를 채취할 인력을 동원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직접 살펴보니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 설치된 그물망으로 열매가 떨어져 한곳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길거리 바닥은 으깨어진 은행열매가 없어 악취도 나지 않고 깨끗했다. 작은 아이디어와 고양시의 노력으로 악취 없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다. 🍂



길바닥에 수북히 떨어진 은행 열매



으깨어진 은행 열매로 인해 지저분해진 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